

장성군 논콩 재배로 쌀 공급과잉 막는다

논 타작물 재배 적극 독려
농기센터 다수확·고소득 교육
콩 재배면 소득 30% 늘어

“쌀 대신 콩을 심어 보세요. 일손 적게 들고 소득 높고 일석이조죠.”

장성군은 최근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책으로 ‘논콩 다수확 재배 기술교육’을 하는 등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기술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한은성 축산공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은 콩을 재배하고 있거나 콩 재배를 바라는 농업인에게 논콩 다수확 재배 기술과 콩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사무국장은 콩 주산지인 김제시의 축산공영농조합법인의 농업인들은 콩 재배 기계화를 끌어올리고 콩 수확을 마친 뒤 우리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고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농업인회관에서 한은성 축산공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이 논 콩 재배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또 콩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공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3년 170ha에서 510t의 콩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1100ha에서 4125t의 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배 면적이 6.5배 늘어난 데 반해 수확량은 8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한 사무국장은 또 “재배 기술 개선과 광

역방제, 전용 콤바인 이용 등 기계화 재배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이 이처럼 논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쌀생산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쌀값은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자칫 생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쌀 재고가 더 쌓이면 쌀값이 또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올해 타작물 전환 실적의 목표치의 50%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산지쌀 값(80kg)이 15만원대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은 장려금을 주며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손 절감과 수익보장 등 타작물 재배의 장점을 설명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알려 쌀 공급 과잉 사태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논에서 콩을 재배하면 벼를 재배할 때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논 1ha(3000평)에 콩을 심으면 콩 소득(580만원)과 경영 안정 대책비(57만원), 고정직불금(100만원), 콩 생산 조정비(280만원)를 포함해 총 1023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벼 재배 소득(797만원)보다 28%가량 많은 수치다.

장성군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을 막지 않으면 쌀값 폭락 사태로 농가가 피해를 입게된다”며 “논콩을 비롯한 벼 대체 고소득 작물 또는 새로운 2모작 방식을 보급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슬로시티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떡 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삼지내마을서 ‘음식인문학 여행’

‘봄 여행 주간’ 매주 50명 신청...다양한 체험행사

“장평 삼지내마을에서 남도의 맛과 멋 한가득 담아주세요.”

담양군이 봄 여행주간 동안 ‘슬로시티 담양’에서 음식인문학을 소재로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담양군은 2018 봄여행주간 지역특화 프로그램인 남도의 봄 ‘음식인문학 여행’을 장평 삼지내마을에서 ‘담양떡의 슬로밥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슬로밥상 음식체험(대동구이, 가마솥밥, 봄나물무침)과 살림인문학강좌, 봄나물 캐기, 별자리체험, 별빛음악회, 한옥문화체험, 한과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봄 여행주간 내 매주 신청수 50명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당일 참가비는 3만원(식사 1회 포함), 1박 2일은 5만5000원

(숙박, 식사 2회 포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봄 여행주간에 남도의 봄을 밝힐 특별한 음식인문학 여행 행사를 마련했다”며 “담양만의 색다른 매력을 담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으니 여행주간 슬로시티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예약 및 문의는 장평슬로시티위원회(061-383-3807)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평슬로시티 홈페이지(slowcp.com)와 담양군문화관광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봄 여행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름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교육지원청 상담업무 역량강화 연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 Wee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지역 상담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상담업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김양임 광양 YMCA강사를 초청해 ‘성(性) 인지의 개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OX퀴즈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점검했으며 동영상 시청으로 성 인식수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고 있는지 알아보고 안전한 성과 건강한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요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와 성문화가 많이 달라져 놀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Wee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프로그램과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Wee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지난 18일 월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입암산과 방장산에 올라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 주목

최악의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 장성군의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장성군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 720여명을 대상으로 숲에서 아토피와 천식 등을 예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아토피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8일에는 월평초등학교 학생 170여 명이 입암산과 방장산에 올라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아토피와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천연재료를 이용해 벌레물림 치료제와 비누를 만들기도 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숲의 치유 기능을 활용하고 장성의 숲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맑은 숲에서 또래들과 자연놀이를 즐기면서 아토피와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오감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지역 2개 농협 로컬푸드 年 67억 매출

화순군 지역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농협과 화순농협 등 지역 내 2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간 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출하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장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화순 2개 사업장에는 지난해 700여 농가

가 참여해 742종의 농축산물을 공급했다.

화순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축적사업과 포장재 지원,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직매장별로 전년도 매출실적과 참여 농가수를 반영해 사업장을 배정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 과일 서울 성북구 초등학교 급식 공급

담양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과일이 다음 달부터 서울 성북구 내 초등학교 급식으로 공급된다.

담양군과 담양농협은 최근 성북구와 과일급식지원 동행(同幸) 협약을 하고 친환경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 블루베리, 수박, 포도 등을 5월부터 성북구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납품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은 지난 2011년부터 성북구 지역 학교에 담양산 친환경 쌀을 납품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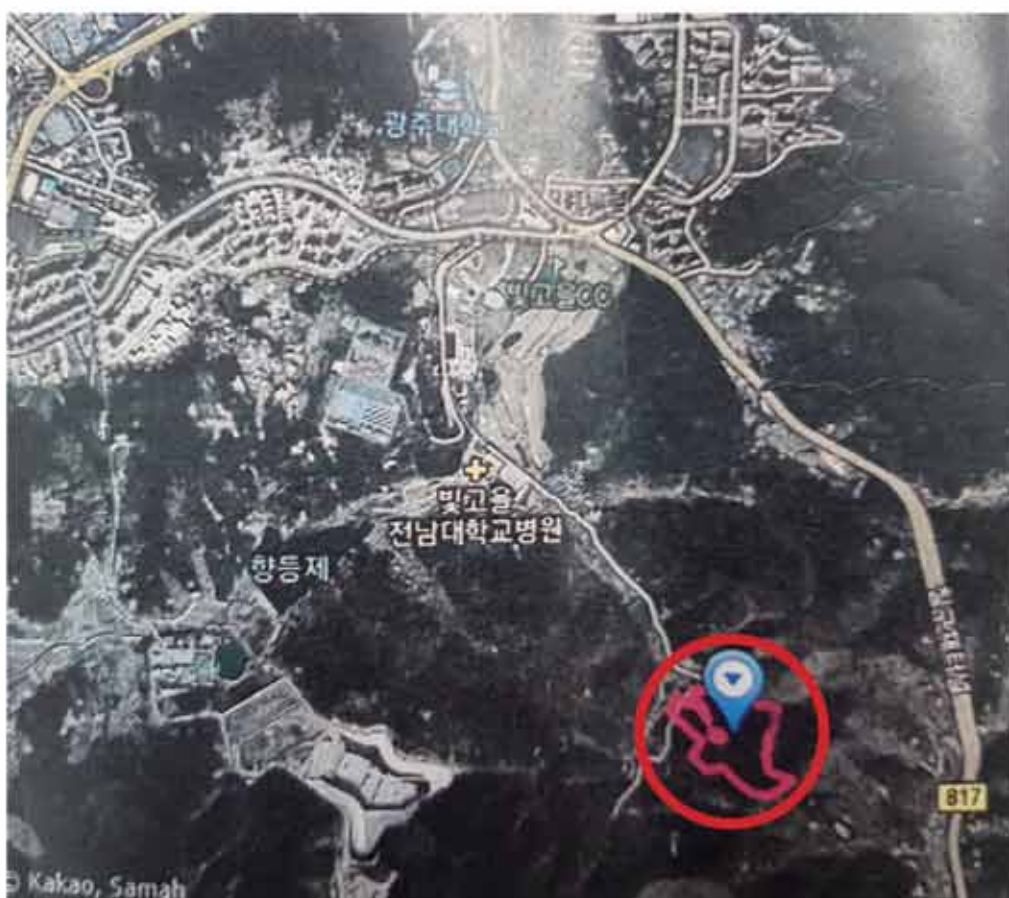
강경원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신선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담양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위생

과일급식지원사업 동

018. (화) 14:00



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이 수도권 등 학교급식 시장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